

古下 宋鎮禹 선생의 생애와 사상

손문호 (서원대학교 총장·교수)

1. 성장과 학업

고하 송진우 선생은 조선이 쇠퇴하여 열강의 침탈 대상이 되어가던 1890년 5월 8일(음) 태어나 생애의 대부분을 일제하 망국 시대에서 민족 지도자로 활약하다가 일제 패망 뒤 새로운 조국 건설의 와중에서 1945년 12월 30일 피살되어 비명에 타계하신 우리 현대사의 거물이었다.

고하의 정치사상은 한마디로 우파 민족주의였다. 고하는 사상사적으로 근대화를 통해 제국주의 외세의 침략을 극복하려 했던 한국 민족주의의 태동기에 태어났다. 일제하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온 이래로 사상계는 좌우로 나뉘게 되는데, 고하는 철저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파 민족주의로 일관했다.

고하는 일제하에서는 암흑기의 좌절을 딛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독려하는 중방의 교육자 또는 언론인으로서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 피살될 때까지의 짧은 기간에서는 신중하고 사려깊은 정치가로서 상황과 주어진 조건을 냉철히 파악하여 민족과 국가를 위해 바람직한 선택이나 결정을 도출하려고 노력했다. 일제하에서나 해방 이후에나 고하는 권력에 탐닉하거나 현실을 맹목적으로 추수하는 인물은 결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명분에 얽매이지도 않았다. 또한 고하는 대중의 여론을 정치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자였지만 선부른 절충이나 대중의 감성에 편중하여 호소하는 것은 단호히 거부했다.

고하에 대한 그러한 인물론에 대해 異見이 없는 것은 아니다. 좌파의 관점에서는 물론 항일투쟁과 자주정권의 수립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일반의 관점에서 그의 행보는 논란거리가 되곤 했다. 일제하에서는 타협을 일삼았고 일제의 패망에 즈음해서는 보신에 급급했다거나, 해방 후에는 친일배들을 용납하는가 하면 미군정의 점령정책에 편승한 반민족적 정치세력의 거두로 변신하여 신탁통치를 적극 반대하지 않다가 피살을 자초했다는 주장이 있다. 이 글은 그런 비난에 대한 반론의 의미가 있다.

한국 민족주의의 기원은 반외세 반봉건의 맥락에서 보아 멀게는 이른바 재야 정통주자학의 위정척사운동과 그 연장의 항일의병운동, 주자학에 비판적이었던 실학운동에서 연원하는 개화운동, 그리고 동학과 농민운동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한

민족주의의 태아들은 점차 식민지배의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던 일제에 대해 즉각적인 무장투쟁을 지향하는 흐름과 계몽 식산을 통한 실력양성 곧 자강을 도모하며 대기하자는 흐름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한국 민족주의는 끝내는 망국을 면치 못하고 좌절하게 된다. 러시아혁명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사회주의에 전념될 때까지는 대체로 한국 민족주의가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그다지 변화가 없었다. 다만 일본 유학의 급속한 증대를 통해 교육 내용의 변화가 있었고, 그것이 내면적으로 한국 민족주의의 질적인 성장을 진행시키고 있었을 뿐이다. 내용상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성장과정이었다.

고하의 민족주의는 그의 학업 과정에서 기틀이 마련되었다. 고하는 가학의 수준에서 한학을 배우다가 1894년에 기삼연(奇參衍)을 만나 정통 주자학을 본격적으로 접하게 된다. 기삼연은 을미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계기로 불타올랐던 유생 주도의 의병투쟁에 참여했던 인물이라고 한다. 고하는 1906년 부친 송훈(宋煥)의 훈도를 받아 담양 창평의 영학숙(英學塾)에서 개화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로부터 고하의 민족주의가 자강운동의 계열로 전향하게 되었다.

고하는 김성수(金性洙)와 함께 1908년에 일본 유학을 단행한다. 유학의 시작은 정칙(正則)영어학교에서 시작하지만, 다음해에 금성(錦城)중학교로 편입했고, 1910년 4월 조도전(早稻田)대학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인 유학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 해 8월에 망국의 충격으로 학업을 일시 중단했다가, 곧이어 다음해에 속개할 때에는 명치(明治)대학 법과로 옮겨서, 1915년에 졸업을 하게 된다. 일본 유학중에도 그의 민족주의가 일관되었음을 입증하는 많은 일화가 있었다. 안중근의 이등박문(伊藤博文) 사살 소식을 듣고 혈기를 돋우었다는 일화나, 망국의 소식을 듣고 유학을 중단했던 사실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유학을 통해 고하의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된다. 당시에 중국에서는 공화제를 표방하는 신해혁명이 있었고, 일본에서도 대정(大正)시대의 출범을 통해 명치시대 군국주의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었다. 고하는 일제에 대한 저항 의지를 불태우면서 그런 시대적 정신을 섭취했다. ‘사상개혁론’에 그런 편린이 나타나 있다. 그것은 당시 유학생 친목회의 회보 「학지광(學之光)」에 실렸던 글이다. 일명 ‘공교타파론(孔敎打破論)’이라는 데서 드러나듯이, 유교를 복고 전제군주주의 가부장제의 사상으로 인식하여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개인의 자유를 주창하고 있는 내용이다. 적어도 당시로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유교의 안티테제였던 것이다.

2. 일제하의 민족지도자

우여곡절 끝에 학업을 마친 고하는 귀국 뒤 잠시 귀향하여 요양한 다음 김성수와 함께 중앙학교를 인수하여 교육 사업에 착수한다. 단군·세종대왕·이충무공을 모시는 삼성사(三聖祠)를 건립하려고 하는 등 중앙학교 시절의 고하는 민족의 자금을 고취하는 데 주력하였다. 한편 중앙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청년조직을 형성하여 유사시

에 대비하기도 하였다.

삼일운동은 일본 유학생들과 교감하면서 고하 등이 주동한 거사였다. 삼일운동의 과정에서 고하가 주도한 청년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삼일운동을 통해 고하는 민족주의 지도자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삼일운동의 주동은 손병희, 최린 등의 천도교 인사들이라는 주장이 있다. 고하는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기도 했지만 민족지도자 33인에 들지는 못하고 차등의 16인에 포함되었다. 재판 결과도 고하 등에게는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런 사실만으로 삼일운동에서 고하가 수행한 역할에 대해 폄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민족지도자로서는 약관이었던 연령상의 이유나 고하의 주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2차 거사를 위해 2선에 머물렀기 때문이라는 설명에도 설득력이 있다. 천도교 지도자들과 함께 고하 중심의 중앙학교 교원 일단과 학생들은 삼일운동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것이다.

삼일운동은 한국 민족주의의 분수령이었다. 삼일운동 이전에는 주로 변경에서 즉각적인 무장투쟁을 시도하는 갈래와 해외에서 열강에 호소하는 외교파, 그리고 국내에서 실력양성 즉 자강을 통해 대기하는 갈래가 각자 또는 상호연락하며 항일 민족주의를 실현하고 있었다. 삼일운동을 통해 그 이전에 나뉘었던 갈래들이 하나로 통합되고 나아가 그 구심점의 필요성을 자각케 하여 마침내 해외에서나마 통일의 임시정부가 탄생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삼일운동은 새로이 치열한 갈등이 전개되는 계기이기도 했다. 그 직전에 일어난 러시아혁명을 통해 밀려든 사회주의의 물결이 삼일운동의 분위기를 타고 한국 민족주의에 대해서도 기세를 부렸다. 바야흐로 한국의 사상계는 좌우의 대립을 노정하게 되었다. 고하는 우파의 입장을 선택하게 되고 이후로도 고하는 선택을 바꾸지 않았다.

삼일운동의 주역으로서 옥고를 치른 뒤 고하는 활동의 무대를 중앙학교로부터 동아일보로 옮기게 된다. 동아일보는 고하가 옥중에 있는 동안 김성수를 중심으로 창간되었다. 고하는 옥고의 후유증을 다스린 다음 강의나 문필 활동을 하다가 1921년에 재정 악화로 고전하던 동아일보의 사장으로 취임하여 경영을 맡게 된다. 교육자에서 언론경영인으로 변신하여 민족주의를 구현하여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삼일운동 이후 일제의 정책이 무단의 직접통치로부터 문화주의로 바뀌었다. 일제 측에서 심지어 자치의 가능성을 비치기도 했다. 민족주의 내부에서도 타협론이 제기되었고, 이광수 등을 통해 민족개량주의라는 호응이 일기도 했다. 고하와 동아일보는 이광수를 중용한 일이나 협박에 굴한 박춘금 사건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타협의 여지를 보여 비판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은 너무나 경직된 이분법적 시각의 산물이다. 고하와 동아일보의 입장은 타협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융통성과 포용성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고하와 동아일보의 항일 민족주의 노선은 동아일보를 정간하게 만들었던 일본의 3종신기(三種神器) 비판이나 국제노동본부의 삼일운동기념사 게재, 손기정 선수 일

장기 말소 등을 굳이 들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식민지 상황에서 지하의 비밀 언론이 아니라 정규의 언론인 동아일보를 경영한다는 것은 항일투쟁의 선명성 측면에서는 명백히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고하와 동아일보는 항일 의지를 북돋우는 기사를 실음은 물론, 일제의 치밀한 언론 탄압에 직간접으로 저항하여 민립 대학설립운동, 브나르도운동 등의 사회문화 운동을 영위하면서 민족주의 언론의 자세를 견지했다. 끝내 폐간을 면치 못했던 사실 자체가 반증이다.

삼일운동 이후 통일의 임시정부를 탄생시킴으로써 한국 민족주의는 분명 성숙하게 되지만, 심각한 분열과 대립의 국면에 빠지게 된다. 임시정부에서는 노선이나 이념의 갈등에다가 퇴행적인 출신지역 갈등까지도 증첩되어, 임시정부의 존재 자체가 도리어 한국 민족주의의 진전을 발목 잡는 모양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특히 러시아혁명을 계기로 민족의 해방보다는 계급의 해방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의 열병이 한국의 항일운동에도 번져 민족주의를 압도하기에 이르렀다. 전통적 민족주의와 신홍 사회주의의 이른바 좌우대립이 항일전선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좌우합작이 임시정부의 과제로 떠올랐다.

해외의 임시정부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좌우의 분열과 대립이 심화되고, 그에 대한 반성이 촉구되어 좌우합작이 시도되었다. 신간회가 그런 맥락에서 결성되었다. 신간회는 우파 가운데 비타협적 민족주의세력과 좌파의 항일 통일전선이었다.

고하는 신간회의 출범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나중에 참여하긴 했지만 역시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신간회의 해체를 주장하기까지 했다. 신간회가 항일전선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고하의 신간회에 대한 소극적 자세는 그의 민족주의에 대한 평가에 감점 요인이 되고 있다.

고하는 왜 신간회에 대해 그렇게 소극적이었을까? 무엇보다도 그것은 고하가 좌파와의 협력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고하는 당시에 좌파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고하의 좌파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은 어디서 나왔으며, 어떤 점에 대한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이야말로 고하의 민족주의에 대한 공정한 평가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고하의 출신이나 인간관계가 좌파에 대한 원초적 불신을 가지게 했다고 볼 수 있다. 고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뚜렷한 양반 가문 출신인 데다가 호남의 대표적 지주가문 출신으로서 당시 대표적 부르조아로 꼽혔던 김성수와 의기투합했다. 그러나 고하의 반좌파적 성향은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쟁에 대한 고하 나름의 뚜렷한 이해에 입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그런 대세관이 원초적 이유와 연관지어 설명될 수 있지만.

고하의 견해는 대표적 논설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에 잘 나타나 있다. 고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절충이나 타협이 불가능하고, 장래에도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 갈등 대립할 것이므로 어차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고하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우세하다는 판단을 했고, 일생을 통해 판단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않았다.

좌우합작주의의 신간회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가지는 고하의 진지한 인간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음 항에서 언급하겠지만 일제로부터 해방될 때를 전후한 시기에 고하가 취했던 행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한 비타협성은 결국 피살로 귀착되는 고하의 불운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3. 해방 정국의 정치가

일제의 패망을 눈앞에 두고 총독부에서는 사태의 수습을 위해 국내의 민족지도자들과 타협을 시도했다. 고하와 여운형, 안재홍 등이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고하만이 단호하게 거절했다. 총독부와 타협하는 것은 우선 명분상으로 일제로부터 통치권의 일부를 이양 받는 격이고, 현실적으로도 당분간 일제의 지배가 지속될진대 자율적인 복국(復國)이나 정부수립은 여의할 수 없을 것인즉,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국이나 부국 정부수립이 아니라 괴뢰정부의 탄생으로 귀결될 뿐이라는 것이었다. 통치권의 회복이나 신생(新生)은 대외적으로는 연합국의 인정을 받고 대내적으로는 국민대회의 형식과 인준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고하의 원칙이었다. 고하는 그의 선택이 소심하고 무책임한 보신주의라고 매도되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

결국 일제의 요구는 여운형에 의하여 받아들여졌다. 여운형은 미리 관리하고 있던 건국동맹이라는 조직을 활용하고 좌우의 세력을 규합하여 기민하게 건국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여운형은 고하와 안재홍에게 동참을 요구했는데, 안재홍은 수용했지만 고하는 거부했다. 고하가 건준을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완고하여 시세에 어두웠다는 비난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당시로서 좌파와는 진정한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신념에 입각한 고하의 결단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건준은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기까지 했지만 고하의 예상대로 좌파의 유치한 시나리오에 입각한 것이었고, 결국 좌우의 정치세력은 각각 정부를 수립하여 민족 분단 시대를 열었으며, 좌파의 북한 정부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하의 판단과 선택은 일단 결과론적으로 볼 때 정확하고 미래지향적인 것이었다.

좌파나 우파 일각에서는 고하를 일제에 대해 타협적인 인물로 매도했지만,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 고하가 취했던 행보는 그런 매도가 부당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고하는 일제와는 물론 좌파와도 분명한 선을 그은 데서 알 수 있듯이 타협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 원칙주의자였다. 다만 고하에게는 원칙주의와 어울리지 않는 융통성과 포용성이 있었다. 고하는 좌파를 제외한 모든 세력, 해외파나 국내파를 막론한 모든 민족주의 세력의 화합과 단결을 주장했다. 심지어 친일 행적에 대해서도 오해와 비난을 아랑곳 하지 않고 포용의 여지를 보였다.

고하에 관한 「해방전후의 조선진상」의 다음과 같은 평은 비교적 공정한 것으로

보인다.

종래에 일본인은 송씨를 배일파의 거두시하고 동아일보를 배일파의 소굴시한 점으로 보아서나, 동씨를 신뢰하고 주위에 집결된 독립운동의 투사 제씨를 보아서나 동씨의 경력·사상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동씨에 대한 악평은 천만부당한 오평이라 하겠으며 일부 반대파의 고하의 악선전 또는 무지한 일부 인사의 무의식적 비난에 불과하므로 문제시할 필요도 없다.

마지막으로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된 신탁통치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원칙에 투철하면서도 시세를 역류하지 않았던 국내파 우익 민족주의의 거봉, 고하의 서거에 대해 음미해 보기로 한다.

언급한 바와 같이 고하는 해방정국에서 건국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중경에서 귀국한 임시정부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외파 임정은 밖으로 연합국의 인정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안으로도 좌우의 여러 정치세력을 융화하지 못함으로써 여망과 권위를 점차 상실하고 있었다. 특히나 국내의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고압적으로 배척하는 분위기였고, 결국 다양한 우익의 갈래가 임정을 떠나 새로이 한국민주당으로 결집하게 된다. 고하의 포용성이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고하는 한민당의 창건에 명실상부하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민당 세력은 우파의 대표로서 미군정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였고 희망이 밝았다. 그런 만큼 역설적으로 한민당 세력의 지도자로서 고하는 좌파는 물론 우익진영 내에서도 임정의 수반으로 추앙받던 이승만과 김구의 측근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의 격렬한 견제를 피할 수 없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발표되면서 그런 미묘한 판도는 소용돌이로 표출되었다. 즉각적인 반응은 식민지 시대의 연장이라는 시각에서 하나같이 탁치에 대한 극렬한 거부였지만 곧바로 정리된 입장의 분화가 나타났다. 좌익은 소련의 지령에 따라 확고한 찬성으로 돌아섰다. 우익진영에서는 반탁의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김구 중심의 임정세력은 미군정에 대한 거부를 불사하는 무조건의 절대적 반대였던 반면, 고하 중심의 한민당 세력은 반대는 하되 현실적으로 미군정과 조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고하는 그런 와중에서 피살되었다. 고하의 피살은 우익 내부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여기서 관심은 고하의 입장이 민족주의의 손상을 무릅쓰고 정권적 차원에서 미군정과 타협하려던 것이었는가의 여부에 대한 것이다. 역시 결과론적 해석이 불가피하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을 실천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됨에 따라 탁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승만의 의도대로 남한에 단독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우리 민족사는 분단시대로 접어들었고, 한민당은 그런 흐름에 다분히 편승했다. 그렇다면 분단시대는 불가피한 것이었을까? 그런 귀결에 대해 이승만과 고하는 같은 생각이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고하가 생애의 마지막 대목에서도 일관되게 원칙에 충실하여 좌파와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시세를 헤아리는 신중한 정치가의 자세를 견지하려

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고하가 헌신했던 동아일보나 한민당이 모두 대한민국의 주류를 이끌었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식민지 시대를 극복하고 세계사의 주역을 꿈꾸고 있다.

우리의 현대사는 식민지 시대와 분단시대를 거치면서 항일과 친일, 좌파와 우파의 이분법적 흑백논리에 시달려왔다. 절대적이고 노골적인 입장만이 인정되는 고도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런 긴장이 필요한 시대가 있고, 과거는 그러했을 지도 모른다. 고하도 시세에 결코 둔감하지 않았지만, 일제나 좌파와는 타협을 거부했던 원칙주의자였다. 고하 스스로 이분법적 대립을 일삼던 시대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그런 긴장은 창의적인 여유와 상반된다. 오늘날도 그런 긴장이 필요할까? 지금은 배타가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고, 직접의 노골적인 표현이 아니라 ‘통해서 말하기’도 평가받아야 하는 시대가 아닐까? 원칙에 충실하여 타협을 거부하면서도 포용을 강조했던 고하의 생애와 사상은 그렇게 본다면 새로운 평가의 여지가 있다.

손문호 :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전 서원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서원대학교 총장.